『싸』博士誕生紀念 에쓰페란토大講演

십오일오후여섯시반부터 청년회관에서세계어강연

세계의수억만대중으로하야금평화를누리라면커언어(言語)라는장벽을 쌔치고이를 통일하여야겟다는의미로『폴랜드』의『싸멘호프』박사가 세계어인『에스페란토』를발명한이래로 이것이세상에 널리전파되야 지금에이르러 이말을사용하게된 나라이며 백청이 만케되얏는데 시내에잇는 사계의유지로 조직한조선에스페란토련맹에서는 금십오일이『싸멘호프』박사의탄생일임으로 이날을긔념하고저하야 긔념대강연회(紀念大講演會)를 시내종로중앙긔독교청년회관에 열고오후여섯시반부터 아래의비연사의 강연이 잇슬터이라는데 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저하야 회비로십전식을밧는다더라

『싸멘호프』의 一生(朝語) 辛鳳祚
흥미잇는이야기(에스語) 大山時雄
『에스페란토』의必要(에스語) 金億
『에스페란토』의精神(日語) 山本作次

閉會後親睦會 회비는이십전

별항강연이 씃난후 동회의친목회를 열터이라는데 이회에출석하고저하는이는 회비 이십전을 지참하기를 바란다더라

參議部의 納稅命令

참의부비용에 쓰기위하야

모처에 도착된정보에 의하면 만주집안현(輯安縣)데일구소황구(小荒溝)를 비롯하야 대황구(大荒溝)대청구(大淸溝)데사구 황박뎐자(黃柏甸子)고자구(蒿子溝)기타부근일대에 이주하야잇는조선동포 사이에는 참의부데일중대(參議部第一中隊)를조직하고 그대장리○○(李○○)의명의로 면안주민에게 납세(納稅)명령을나리엇다는데 그세금을바터서 숨길울듯건머얼마건에 참외부데일동마간부리모(李某)외한명이 동현 보갑(保甲)데이구에서 중국관헌의 손에데포된바 봉표(奉票)구백원과 백미사백오십두(斗)를 무려주겟다는계약아래 석방되얏슴으로 그계약금을갑기위함이라더라

天道青年黨의 新人間大學

인일긔념일부터 약일주일동안개강

시내경운동(慶雲洞)텬도교청년당(天道教靑年黨)에서는 금번인일긔념(人日紀念)을긔회삼아 신인간대학(新人間大學)을개설하고 사계에명성이 놉흔 제씨를청하야 오는이십이일부터 이십팔일까지일주간 교수하리라는데 과목은 아래와가튼바 일반의만흔청강을희망한다더라

一、東學에對한史的考案
一、現下朝鮮의事情
一、世界政情의推移
一、社會學說의槪要
一、農村問題
一、今後의宗教
一、今後의道德及倫理

貞面納稅不良

생활난에쫏기어서

전남담양군뎡면(潭陽郡貞面)은 총호수(戶數)칠백칠호에 인구(人口)는 삼천삼백사십 삼명인데 전반의생활이 그다지넉넉치못하야 이백석(二百石)수확(收穫)의재산가가 한사람을제한외에는 전부가 자작농(自作農)은한아도업고 소작(小作)생활로 근근히 연명을하여가는데 그것이나마 수확의전수를 디주에게 주고 필경은 조석을 어더먹지못할뿐아니라 겸하야 금년은 면작수확(棉作收穫)이 평년에 비교하야 육할이상이 몰락이된바 이만이천원의거액이업서지게되엿슴으로 그런처안허도 다죽어가는 그들에게는 다시말할수업는 생활의 곤난을당하야오는중 근일에 더욱 곡가(穀價)의 하락이 크게원인이되야 엄동을알어갈길이 망연한중 데일긔세금(第一期稅金)납입긔가 닥박하엿스나 납세성적이심히불량함으로 십일일까지에 면직원들의 출장징수한것이 일원오십전에불과하다더라(담양)

有名無實하든 除穢調査會解散

경비만드려놋스나소용업서서

경성부당국에서는 종래제예됴사위원회(除穢調査委員會)라는것을 설치하고 대경성(大京城)삼십여만시민의 매일배설(排泄)하는분뇨(糞尿)의 처분과 및진애(塵埃)의조처방법에대하야 연구토의하여왓섯는바 이소위 제예됴사위원회라는것이 설치된 이래사오개성상을 지난 오늘에까지 과연 그효험을본바 무엇이잇는가함에는 누구던지 의혹을품을만콤 유명무실(有名無實)한것에지나지못하얏섯다 그러나 경성부당국은 됴사연구라는 미명을퇴우고 쓸곳이만흔거액의 경비를 허비하며 이것을 고집하야 여론을무시하고 지금까지 계속하여왓섯는데 완명한 부당국에서도 달이가고해가지날사록 이위원회의 존재가 과연 하등효과를보이지못함을깨다럿슴인지 지난십사일 오후두시부터 경성부청안에 개최한위원회를 최종으로하야 이회를해산키로 하엿다는바 부당국 모씨는 말하되『지금까지이회를 지속하여온것은 일종의어리석은일이요 돈만잇스면 됴사회가업다하드라도 충분히제예사업(除穢事業)을하여왓슬것이올시다 그럼으로 명년부터는 이가튼일은업도록하고 이곳에쓰이든 경비를 직접부민을위한 사업에 한푼이라도 더보태여쓰고자함니다』는함으로 이말을 듯드라도 과연 이종류의회합이 얼마나 그존재를 의심할만콤 행한바 사업이업섯든것을 가히알수잇다 하겟더라

漢江을利用하야 除穢實行

뎌류장을만드러 모앗다가상하류로운반

제예사업됴사회(除穢事業調査會)가 최후의운명을 짓고자한다함은 별항보도와갓거니와 최종의위원회인 십사일 위원회석상에서 위원중모씨는 분뇨처분문데에대하야 가장리상뎍(理想的)이요 경제뎍(經濟的)방법으로『한강(漢江)』을리용하자는데안이잇서 지금까지 동위원회로서 토의연구가잇던중 가장 뎍당한것이라하야 부당국자의 의향도 대개 이안을채택할듯 하다는바 그안은 즉한강반(漢江畔)에 분뇨진애의 뎌류장(貯留場)을 시가(市街)와 격리한곳에 깊히만들고 그곳에뎌류하얏다가 수리(水利)를 리용하야 한강상하류의 각농촌(農村)과밋농장(農場)에 분여하자는것으로 경비도간략이들뿐아니라 년사십 삼만석식되는 분뇨의전부를 조곰도 남기지안코 처분 할수잇다는것이더라

움집管理者가 阿片密賣者

경찰은엄중취톄

경찰의 경계망이 빈틈업시 느러잇건만 여전히 별별종류의범죄가 만히발생 되는데 얼마전에도 만흔편도를양성하야 그들의장품으로써 상품(商品)을삼다가 필경엔 피착되엿다는것은 이미보도한바가 잇섯거니와 이번에도 또다시 그와비슷한 사실이발각되엿다 그는시내북미창뎡(北米倉町)에잇는 김성호(金性浩)가 이십여원권에 시내 서소문뎡(西小門町)삼십호번디 어웃빈터에 움(土窟)을 무더두고 빈한한 로동자들 수용 한다는데 그움의 관리자는 리래화(李來化)라는사람으로 로에 금매일사십여명의 주소부뎡자를 숙박식히는데 그들은 모다가 일당한직업이업는 조선사람과 중국사람의 모루히네중독자들인데려 절도상습자라하며 또전긔관리자는 그들에게 모루히네를밀매하는혐의가잇슴으로 방금경찰의 주목을밧는중이며 이와가튼편도의 소굴을발견한 본뎡서(本町署)홍(洪) 형사는 벌서데그소굴로부터 십여명의범인을포하엿는데 그움을무든 이후로 시내에발생된절도는 거의그소굴의소유자와 관리자에게도 털을에장복하여잇슴으로 불일간그뒤를내릴터이라하며 편도가 가위첫슴으로 그곳에 장복한자를 권부인치하야 엄중한취됴를할터이라더라

朝鮮人商店의 歲暮賣出

일본인에게대항코저 십육일부터매출

[illegible]면발에는각관령회사로부터『선ㅣ나쓰』가나와서다소금 인상뎜에서는 이것을엿보고 십일일부터 세모경품 부대매출(歲暮景品附大賣出)이란일홈으로 [illegible] 조선인상뎜에는 편발에도 손술하게됨으로 상업발뎐과 금융원활을위하야 조선인상뎜에서는 십륙일부터 세모경품부대매출(歲暮景品附大賣出)을하기로되엿다

財界恐慌과 花柳界

재계와는반대로 호경이풍성풍성하다

재계가 공황하다함은 귀에못이 박일만큼 들리는이때에 화류계(花柳界)에는 여전히 성황을이루는모양으로도 지난십일월중에 경성시내의예기(藝妓) 시간대(時間代)를보면 삼만구천일백삼십삼시간으로 작년동월중의 삼만사천구백구십사시간에 비교하야 사천일백삼십팔시간이 증가되엿다는 이러한현상을이두웟다는데 이러한결과를보면 화류계는 재계가공황하면 공황할사록 더욱이 시세가 조하지는 모양이라더라

道當局處置模糊로 文川永興兩漁民衝突

영흥어장구역문데로 두곳어민이서로격투

지난십일월이십삼일오후두시경에 문천군 천탄강 규어업자박운표(文川郡箭灘江鮭漁業者朴雲彪) 방도선(方道善)과 영흥군룡흥면 연어업자 박한유외 십여명(永興郡龍興面鮭漁業者朴漢鍮外十餘名)과 사이에 일대충돌이생겨 박운표방도선두명은 중상을당하야 그형편이 매우위독하다하며 피해자들은 즉시영흥군억기면주재소(永興郡憶岐面駐在所)에 고소를 데긔하얏다는바 그원말을들으면 천탄강 입구(入口)에잇는 속칭삽거리라는어장은

영흥어장 구역(永興漁場區域) 이아닐뿐아니라 천탄강(箭灘江) 의어로(魚路)임으로 영흥어민들이 천긔어장에서 어업하는반면에 천탄강어업에 손해가 미친다하야 박운표 방도선등은 천긔어장을 금어장(禁漁場)으로하야달라고 도당국에 탄원하얏든바 함남도텽(咸南道廳)에서는 수산계기수 석정모(水産係技手石井某)가 천긔 어장에와보고 천긔어업자들의요구가 어련하니 금후부터는 천긔어장에서 피차어업을하지말라고하며 지청하는길로 량군텽(兩郡廳)에 시도하겟노라하고지금까지

아모처치 가업서 영흥어업자들은 여전히(삽거리)어장에서 연어를잡는까닭으로 박운표와 방도선은 룡흥강어업소(龍興江漁業所)에가서 석정기수가 이미 천긔 어장을 금어장으로 정하얏슴에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서 어업을계속함은 무리하다하야 흥강측에서는 석정기수가 그와가티말하얏슬지라도 별서월여가되도록 당국에서 정식으로지시가 업는이상 석정기수의말에는 복종할수업다하야 피차 도당국의처치를 표방하고 송강하든중 권긔박한유가 박운표와 방도선에게 술을사준다고

유인하야 영흥군억기면덕하리(永興郡憶岐面德下里) 음식뎜영업하는 손봉주(孫鳳周)의집에 다려다노코 그종업자 십여명으로하야금 무수란타케 하얏다는바 이번어업자간의 충돌은 도당국자의 처치가 모호한까닭으로 어민간에 충돌되게하얏다고 일반의비난이만타더라(문천)

間島의積雪로 交通困難

곡물상의대곤난

간도일대(間島一帶)는 지난삼일 누터 나리는눈은 [illegible]

雲坪里民의 漁業權取得運動

도텽과수산회에진정서

함남영흥군홍인면운평리(咸南永興郡洪仁面雲坪里)는 일백이십여호가사는 한농촌(農村)으로 소수의자작농(自作農)을제한외에는 모다국유디소작(國有地小作)농민인데 지나간대정팔년에 한재(旱災)와수재(水災)가 충첩출하야 생계가 망연하든중 리강공뎐하(李堈公殿下)의 경영어장(漁場)인 룡흥강상권(龍興江上箭)의 어전어업(魚箭漁業)긔간이 만료됨을알고 주민들은 고기나잡어서 생명을 유지하고저

유지하고 저데일종어권 어업면허원(第一種漁魚箭業免許願)을 당국에데출하얏더니 당국에서는 리강공뎐하가 권리존속(權利存續)한다는 리유로써 그서류를 퇴각함으로 생도를구하려다가 실패를당하고 긔한에쫏는 그들의 형상은 실로비절참절할뿐만아니라 대정구년에 이르러는 국유디를 불하(拂下)하게되매 항상 소수유력가들이 모다사게된바 그들의오족 한아인생명줄이든 국유디 소작권까지 일허버리고 다시할수업시 새디주로부터 소작권을 어더가지고 가혹한소작료를 주며 간신히 목숨을이어오든중 대정십일、십이량년에 또미증유의 홍수가 거듭나서 그들에게 참화를끼친바 그후그들의곤경은 세상이 다아는바어니와

수산회에 리강공어장은 함경남도 수산회(水産會)에양도하고 수산회에서는 매년영흥군홍인면 남성암리(永興郡洪仁面南城岩里) 량군익(梁君翊) 일개인에게 룡흥강상하어권(龍興江上下魚箭)을 대여(貸與)하야 량군익은 년년상당한 수익을어더 지금에는 수만의거부가 되엿다 [illegible]

金融貸出高로본 朝鮮人南浦의破滅!

매명평균대출액의수자면를보 조선인은삼백원일인은만여원

관서디방(關西地方)수륙(水陸) 무진장의보고(寶庫)를배경으로하고 이루어진 관서디방의 관문(關門)진남포(鎭南浦)가 해가가고날이갈수록 외래(外來)의일본사람들에게 생존의디반(地盤)을 빼앗기게되며 심지어 풍부를가리는가옷까지도 조선 사람에게는 평균한평식밧게 들리지안는 현상으로 조선사람의 파멸이 당장에 우리의눈압헤 버려커온다함은 본보로두누히 보도한바어니와 이케인구의수에 잇서서나 관계디방의 긔초산업이 모다우리조선사람의손으로도 경영되는 덤으로 보아 진남포조선시민의 생활이 한층더 향상발뎐하여야 될거디에 잇서보히나 실케로 그 내면생활만은 그와정반대의 결과로써 날과버로 파멸을 거듭하고잇슬뿐이니 그리유와 원인은 물론정치와권력의원조가 잇고업슴에잇슬것이나 이케

진남포 시내에잇는 조선상업식산(殖産)등세은행(銀行)에서 베풀고잇는 소위금융정책이란것이 은은한가운데서 찬란한황금그물을 버려노코 약소한금권을밋기로 그얼마나 조선사람의 생존력(生存力)을 착취(搾取)하기에 교묘한지 혜를부리고잇는지를 다음의통계표가 보여주는바 이통계표는 진남포상업회의소(鎭南浦商業會議所)에서 십삼년 말현재로됴사한 권긔세은행의 십삼년도 조일중(朝日中)세민족별대출(貸出)액비교표(比較表)를보면

	工業資金	商業資金	農業其他資金	合計
朝鮮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本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國人	三,〇〇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상긔와가티 공업자금(工業資金)에잇서서는 조선인의대출액(貸出額) [illegible] 에 일본인의 대출액은 [illegible] 오십륙배(五十六倍)이상에 달하며 상업자금(商業資金)에 잇서서는 [illegible] 십배(十倍)이상의

육원에 비하야 십분의일도 못될뿐아니라 이를다시인구의비례로 보게되면 조선인한사람 (이만이천인치고) 에게는 불과삼백십칠원 평균밧게 못되는데 일본인매명 (륙천인치고)에게는 일만일천팔백사십삼원이란 거액의금권이 융되고통잇슴을 보여주는터인즉『총이무섭다』『검(劍)이무섭다』! 하여도 아ㅣ오늘날 조선사람에게는 일본사람의소위 금융정책(金融政策)에서 우리나는 황금(黃金)의 그물이얼마나 두려운것인가를 가히알수 잇겟더라(진남포)

一葉密書가 死刑宣告

루명을벗고자 소부가자살해

지난십일 오전열시경에 충북보은군보은면 삼산리(忠淸北道報恩郡報恩面三山里)오십이번디 안해득(安海得)(二四)의 처 당년설여덟된 최성녀(崔姓女)는 무참히 목을매여 도라오지못하는 영원의길로 가바리엇다는데 그자살하기까지의 내용을 듯건대 뜻밧게 자긔의 바누질그릇에서 『권연』한갑이

잇는것을 자긔남편을주엇는데 안해득은 그담배를 자긔아우들과 난호어 피우다가 이상한편지한장이 권연갑속에서 나옴으로 그편지를보라한즉 그아우들도 이상히생각하야 서로잡어단기여 씨져바리기까지하얏는바 그편지의내용은 빙설가튼절개를굽히여

자긔의원 을풀어주지아니하면 이몸은이세상에 살지못할것이요 죽어도 원혼이되리라는사연인데 안해득은 분개하야 안해의 행실이 부정한가하고 일장풍파가 일어낫든바 최성녀는 그후이틀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하다가 그와가티 자살하얏다더라(보은)

조직하고

명년도부터룡흥강상권어장을 수산회에서 량군익에게 매매한가격대로인수(引受)하야계속경영하기로결심하고 지나간십월이십일일에 운평리민대회를 동리검창환(金昌煥)씨집에서열고리민백여명이 출석하야 만장일치로 어업권취득운동을하기로 하얏는바 지난십이일에 그들은 량군익이 매년매수어업하는룡흥강상하양어권(兩魚箭)중에서

장전어장 을 [illegible] 주민인동시에 룡흥강의범남으로 인하야못살게된 자긔들에게 분여(分與)하야달라는진정서 (陳情書)에 오십여명이 연서날인(連署捺印)하야 함경남도텽 (咸南道廳) 과동수산회(同水産會)에데출하고 최후까지 교섭하기로결정하엿다는데 그교섭위원의씨명은아래와갓다더라

交涉委員 金昌煥 嚴永益 (영흥)

시앗싸홈

사랑을뺏고저 본처를따리엿다

평양부수뎡(平壤府壽町)삼십삼번디 김선도(金善道)의 첩(妾)김영순(金永淳)이라는 녀자는 김선도의 본처인 최치찬(崔致贊)이가잇기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독점할수업다는 생각으로 지난칠일에 본처최씨를구타하야 약이주간의 치료를받을만한 상처를내엇다는 사실로 최씨는 김영순을거러 평양경찰서에 고소를 데긔하얏다더라(평양)

竊盜前科四犯 출옥후에또절도

원산부명석동(元山府銘石洞)이십사번디박룡일(朴龍一)(三三)은 전과사범으로 본년십월경에 출옥(出獄)되엿는바 그즉시로 원산방면을 횡행하며 다수의 물품을 절취하야 원산부내상동 남촌동고물상김원긔(金元基)상점에다 관일이발각되야 지나간 십일밤에 원산리주재소에 근무하는한형사(韓刑事)손에 테포되야목하취됴중이라고(원산)

龍岡에強盜

이십원을강탈

지난십일밤중에 평남룡강군지운면신촌리사백륙십사번디 김군강(平南龍岡郡池雲面新村里四六四)金君綱의집에 어떤자가 돌연히 드러와서 협박한후 돈이십원을 강탈하여갓다는데아직범인은 테포치못하엿다더라(강서)

四兄弟協力하야 親族을毆打

륙두락소작디까닭에

전남보성군 벌교면고읍리(寶城郡筏橋面古邑里) 박해섭(朴海燮)(三〇)의 아들선동금동길동정동(善東 今東 吉東 正東) 사형데는지난칠일오후네시경에동리친족인 박노경(朴魯鏡) (三九)의 부자를 그의동리뒤삼밧으로 유인하여노코 갈고 몽치로란자구타하엿다는데 그원인은 박씨의 문중답여섯마지기를 빈한한 친족쇠리 돌려가며소작을 하여오

二萬圓橫領

범인은즉시도망

근일 평양경찰서에서는 이만원이라는 적지안은 금액을횡령하야가지고 도망한사실이 잇서서 대활동을 개시하얏는데 내용을 들으면 평양부창뎐리(平壤府倉田里)(보은)

[illegible]

問題多端한 仁川酒造組合

간부불동은분개 조합원비행으로도

인천주조조합(仁川酒造組合)에서는 지나간십이일 오후여섯시부터 시내중화루(中華樓)에서 림시총회를 열고 영업대책과사무소이던과판매용긔(販賣用器)사용에 대한세가지사항을 협의하엿는데 밤늦두시가 되도록의론이 분분하야 결의를하지못하고 산회하엿다는바 그자세한내용을 듯건대 그조합원들의

종래사용 하든판매용긔는일정한표준이 업시양뎐롱에더허팔아왓기때문에 그분량이일치하지못하엿슬뿐더러 첫재위생에도만혼관계 가됨으로주조조합으로써용긔를일정하게만들어가지고 조합원에게배부하야 지나간 십일월이십오일부터 일케히 실행하기로되엿는데 그용긔는 닷되들이와 일곱되들이의 두가지로만든 통인데 또한케를엽허서

물지게에 지고음식뎜에 용달하기로되엿스며 대금은닷되들이는 이원 일곱되들이는 이원구십전인데 분량은 한지게에 한되가량은 더주기로하야 실행하여오든바 조합원중엇더한 사람은 총회에서 일치가결된규뎡도불구하고 사익만취하기 위하야 한지게에한편은닷되들이를사용하고 술갑은 한말갑으로밧는일이

비일비재 함으로이것을 본조합으로서는 곳케지 하엿스나 규칙이무엇인지 공익이무엇인지몰으는 무지몰각한 조합원 중몃개분자는 교묘히 조합의눈을소기어일곱되들이한지게에다가 한말두되가량을 너허주고 또한 한말갑으로밧는 불규측한일이잇슬뿐 아니라 소위단골을 엇기위하야 별별추행을 함으로 규측을생명과가티중요시하는그

조합간부 몃사람은술한잔을팔아 몰수업는 막대한손해를당하얏다하야 당일밤 총회석상에서 규측위반한조합원에 대한처치와용긔문데에 대한 해결을하려다가일부의불평이닐어나서결국 결의를하지못하고 산회한것이라더라(인천)

소한머리에 主人이둘

결국경찰에호소

평남강서군 성암면대정리 배승옥(平南江西郡城岩面大井里裵承玉)은 동리 리현주(同里李鉉柱)의소를빌어 곡물을싯고지난음력초열흘날 룡강군진지동(龍岡郡眞池洞)시장에가서 빌어가지고간소는 우시장밧게 매여두고 쌀전에서가지고 갓던곡물을다판후 집에도라가려고하야 와서본즉 매엿던소가 업서진고로 두루 차저다니던중 룡강군내에산다는 엇던사람이자긔가 찻던소를몰고잇는고로왜남의소를 몯을고잇느냐한즉그사람의대답

郵料橫領店員

본뎡서에잡혀

원적 전라북도고창군흥덕면석우리(全北高敞郡興德面石隅里) 현주시내 익선동(益善洞)에 잇는 백락환(白樂煥)(二三)은 작년 이월부터 시내본뎡(本町) 이뎡목 대판옥호서뎜 (大阪屋號書店)에고용으로잇스면서 동서뎜은 시내에서도굴지하는 서뎜임으로 매일고객이 만흠뿐더러 디방주문이 만흔까닭에 매월우송료가 수백원식되는데 이사무를자긔가 담당하는것을 긔회로 매월 긔부분의우표를 횡령하다가 필경에주인에게 들킨바 되여서 일개월간에 해고를당하고시내를 배회하다가 십이일에 소관본뎡서원에게 피착되여 엄중한 취됴를밧는중인데 이미자백한바의 횡령금액은 일천오륙백원이라하며 또 압흐로도 취됴를따라 만흔여죄가 발각되리라더라

假王 〔三〕

白眼子 譯

요한이가도라와서공작의부하에게 대형을바덧다는데 그리유는 요한이가 계집에반하야 밤을새고 드러갓다는것이라하나 요한이가 공작에게 학대를바들수록 내게는 리로웁게되여갓다

[illegible]

휘파람

▲원적을양남리원군 차호(利原郡遮湖)에 둔리화선(李花仙)이 란당년이십세된녀자 는큰일에신포(新浦) 경찰관주재소에가서 상당한남편을어더달 라고성화를바침으로동주재소에 서는한우숨거리도되고또한두통 거리도되얏다고한다 ▲그녀자는 정식혼인을한남편은행위불명이 된후다른남편을두어번어덧섯는 데종말에또소박덕이가되얏는데 돌아갈려비한푼도아니줌으로닷 새동안을가티살엇스니 하로일 원식오원을 달라는고소까지 하 얏다가 ▲그것도 사불여의하야 나종에는 경찰서에가서 조혼남 편을어더주오한것이라고